



일을 할 수 있다는 통제도 있는데 사람을 도와 모든 노고를 바치고 죽어가는 고기, 가족과 뼈까지 유용하게 쓰여진다. 사람에게 코를 빼어 살면서도 의젓한 자세, 근면과 성실 그리고 아낌없는 자기희생은 소만이 가지는 미덕이 아닐까 생각한다.

나는 영광스럽게도 지난 12월 12일 '96 경희인의 밤'에서 '경희인 상'을 수상한바 있는데 나를 격려하는 뜻으로 알고 소띠 해인 97년에는 더욱 근면 성실하고 아낌없는 희생정신으로 모교발전과 국가, 사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리라 다짐하여 본다.

김 윤 택
(동문 법학 6회)



애지원을 내집처럼

병자년 한해를 뒤로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보다는 오히려 지난날들을 조용히 뒤돌아보며 깊은 상념에 빠질 수 있는 지금이 있기에 나는 성장하는가 보다.

매일같이 앞만 보며 생활하다보니 뒤돌아보는 것을 잊을 때가 너무 많았다.

'94년 1월 애지원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한지도 벌써 3년이 되어오건만 우리 애지원생들에게 보람된 일을 한 것이 별로 없어 한해를 또 보내면서 마음만 착잡하다.

나는 항상 학기초마다 실시하는 애지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첫 말로 우리 애지원에 입

사한 학생들은 정말로 선택받은 모범학생인 만큼 항상 애지원생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타인에 모범이 되어야 하며, 술선수법하는 대학생활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하곤 한다. 또한 이번 학기 만큼은 정말로 내집같이 내가족 내형제 같은 자상한 가르침으로 한가족 같이 생활하며 우애를 돈독히 하는 애지원생이 되기를 간곡히 빌며 새해에는 큰 일인듯 작은 일인듯 귀한 일인듯 흔한 일인듯 힘든 일인듯 모든 일에 애정을 갖고 일을 하고자 한다.

우리 기숙사는 학생들에게 숙식 제공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좋은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중요도를 인식하면서도 열악한 재정현황으로 인해 적극적인 시설 보완을 하지 못한 것은 오늘날의 대학 현실이기도 하다.

이제 '97학년도 2학기에 입주 예정인 우정원이 완공되면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환경이 마련될 수 있어 마음 뿌듯한 한편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참고 열심히 학업에 전념한 우리 애지원 원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 상 목



출과 연인을 맺어 온지도 벌써 40여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출과 하나되어 살아온 저

로서는 남다른 자부심과 긍지로서 올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저의 소띠해로서 감회가 새로운 해가 될 것입니다.

젊은 저에게 고통과 인내 그리고 기쁨과 환희를 동시에 맛보게 해주는 도약입니다. 오랜 세월동안 항상 밝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은 출과 더불어 인연맺은 때문이랄까요!

출입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절, 모든 순간순간을 오로지 출의 완성에만 매달렸던 그 시절, 그러나 이제서야 조금은 출속에 담겨있는 모든 의식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화노애락이며, 인간의 지혜로운 그 자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학은 지식과 지성을 전달하는 곳입니다만 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감성'입니다. 무용가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감성에 충실하다는 것은 그만큼 진실하다는 증거이니까요.

저는 제자들에게 깨어있는 의식에 대해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고와 행동이 어떤 관념에 휩싸이지 않고 언제나 논과 귀를 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열려진 마음이길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주어진 생활, 또 자기가 마음먹은 일을 열심히 해나갑시다. 삶의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밝아진다는 것을 뜻하며, 목표가 열려진 마음과, 바르니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도전은 한 정도 없고 태두리도 없습니다.

김 말 애
(세대 무용과 교수)



소처럼 우직하게

새해는 정축년 소의 해이다. 소는 가족중에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동물중의 하나로 알려져 왔다. 특히 농경시대에는 농사일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죽어가는 가족과 고기를 남기어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바치는 동물이다. 그래서 소는 노력과 봉사의 상징으로 알려져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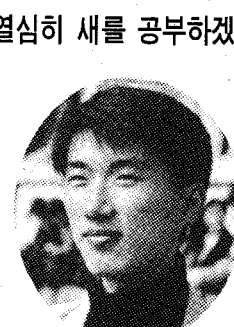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경제협력기구(OECD)의 가입으로 인하여 우리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세계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다가오는 21세기에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 우리는 새로운 각오를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새해에는 우리학교에 새

창장이 취임하여 정축년을 제2의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새 출발을 할 것이다.

이에 학생들은 면학정신으로 채무장하고 교직원들은 맡은 바 연구와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고 학교 당국은 21세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대승적 견지에서 좁은 범위의 이기주의를 과감히 탈피하고 소처럼 묵묵히 자기 맡은 바 역할을 다하는 우직함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

안 서 규
(정경대 경영학과 교수)



열심히 새를 공부하겠다

해가 바뀔수록 뭐가 진짜로 바뀌는 것도 아닐테고 나이스를 다스려 가길 수 있는 희망이 뭐가 있을지 생각해 본다. 답답한 마음에 담배 하나 물고 있자니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조그마한 바람 하나가 떠오른다.

조그마한 숲 하나를 이해하는 것. 생물을 나의 길로 받아들이면서 품게 된 소망이다. 나는 나무 사이를 흐르는 바람

에 실려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가는 꽃가루들과 번식기 새들의 지저귀고 흠에서 묻어나오는 온갖 색의 냄새를 느끼며 살아가고 싶었다. 배가 고프면 날 유혹하는 열매를 따먹고, 목이 마르면 물소리를 찾아가고, 뒤가 급하면 씨앗이 묻어있는 동을 배설하고... 혹자는 나의 현실감각을 탓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코끼리새 하늘이 어깨를 내리누르는 지금 숲을 이해하는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닌 삶에 대한 모색일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스스로 그러함(自然)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새를 배우고 싶다. 주남저수지 하늘을 새가 땅에 닿았던 가장자리들, 한 손에 잡힐 뻔한 새의 심장소리, 새끼에게 먹이를 날라주고 전 기술에 앉아 있던 파랑새, 그리고 도감으로부터 보았던 수 많은 새들... 난 그들을 만나러 생안경을 둘러매고 등산장갑을 맬 것이다.

김 장 욱
(문리과 생물 3)



나와 세상이 변하는 한 해

"별써 한해가 지나갔네.", "올 한해동안 내가 한 일이 뭐지?"

연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푸념적인 말들. 이런 말들이 나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교생활의 마지막이자, 말로만 들던 사회로의 첫걸음이라는 감상의 발로 때문일까?

요즘 부쩍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은 나에게 경희라는 이름은 더욱 절실한 생활의 의미이다. 학교 재학중에 무심히 지나쳐버린 아쉬움의 모습들이 아무일도 없이 학교를 거니는 나에게 더 큰 아쉬움으로 가슴에 새겨진다.

수업에 충실치 못했던 우리들과 교수님의 모습, 유혹문화만을 추구했던 우리들, 지성인임을 의심해 했던 도산사고와 기물파손 등의 일련의 사건들 등등.

어쩌면 너무나도 추상적이어서 고치기가 힘든 이러한 모습들이 내가 사회에서 처음 맞이하는 97년에는 변화되었으면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다. 나는 전경과도 같은 사회속에서 피홀리고 멍든 나의 심신이 쉴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고향같은 교정을 바랄 뿐이다.

일마의 시간이 지나면 나의 새로운 삶의 단원이 되기도 조그마한 변화를 바라고 싶다.

책임감 있는 사회, 사랑이 넘치는 사회, 사치하지 않는 사회 등이 내가 바라는 사회이다. 이러한 나의 푸념조의 한마디가 경희와 한국사회의 변화, 발전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

문 선 영
(자연대 수학 4)

다수의 희생 강요하는 소수에 대한 분노

형식적이었던 점을 반증한다. 그러나 노동계의 입장으로 볼 때 한 가지 수확이라 할 만한 복수노조 허용이 표적적인 3년 유예로 돌려진 점은 그 기간에 관계없이 이번 노동법 개정의 진의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금석이다.

혹자는 이번 일을 두고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 온다고 단언한다. 적절한 표현이다. 독재는 굳이 총칼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만 얻어지는 이름이 아니다. 무슨 짓을 하든 정권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동의 따위는 무시해도 그만이라는 식의 안하무인이 바로 독재의 본질이다. 새해 첫날 방송과 신문에서는 21세기 정보화사회와 세계화가 우리의 눈과 귀를 어지럽게 하겠지만 우리사회의 이성과 민주화의 정도는 20세기도 채 소화하고 있지 못하다는 괴리감이 혼란스러운 연말이다.

朔風

총과업이라고 한다. 그것도 해방 이후 최초로 있는 사건이라고 하니 일이 벌어진 것임에 분명하다. 새로운 한해를 시작할 마당에, 희망 차고 활기찬 계획을 얘기하기도 모자를 터에 얹었다는 것은 바로 밝아진다는 것을 뜻하며, 목표가 열려진 마음과, 바르니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도전은 한 정도 없고 태두리도 없습니다.

자의 생존과 직결된 내용이라고 할 때 다가를 반발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보다는 '사사건건' 반대하는 야당을 따돌렸다는 승리감에 도취한 야당의 자만은 못마땅 지경이다. 그래도 총과업은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총과업은 경제를 어렵게 하고 결국 불이익은 노동자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되돌려서 생각해 보자. 명백한 불안이 눈앞에서 전개될 참인데 무조건 참으라고 말하는 이들의 아전인수가 대단하다. 굳이 책임을 따진다면 노동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책임은 정치력 부재, 이성의 마비가 이미 심각한 정치인에게 있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노동자에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한국의 경제를 위해 한 번 참아달라고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의 극치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선진국의 모

다수의 희생 강요하는 소수에 대한 분노

법이라고 생각하는 영국이나 프랑스 그리고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도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인한 총과업 소식은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그곳의 과정과 우리의 현재 모습은 논의의 과정에서부터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여론수렴과정이다.

영국의 경우 '중소기업 해고법'이라는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무려 6개월 간이나 재계와 노동계의 실질적인 면에서도 총체적인 여론을 수렴한 후 현재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고 한다. 날치기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 나라에서는 야당의 반대가 우리만 못해서일까. 아무리 야당의 반대도 심하다고 해도 국회와 민주적인 절차의 무시는 통용되지 않는 것이 그네들의 사고방식이며 정치의 기본이다.

우리는 어떠했는가. 정부는 여론수렴에 충실했다고 하지만 사상 초유의 총과업은 그 여론수렴이 매우

형식적이었던 점을 반증한다. 그러나 노동계의 입장으로 볼 때 한 가지 수확이라 할 만한 복수노조 허용이 표적적인 3년 유예로 돌려진 점은 그 기간에 관계없이 이번 노동법 개정의 진의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금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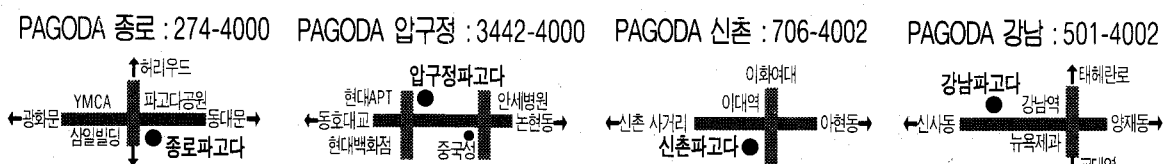
혹자는 이번 일을 두고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 온다고 단언한다. 적절한 표현이다. 독재는 굳이 총칼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만 얻어지는 이름이 아니다. 무슨 짓을 하든 정권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동의 따위는 무시해도 그만이라는 식의 안하무인이 바로 독재의 본질이다. 새해 첫날 방송과 신문에서는 21세기 정보화사회와 세계화가 우리의 눈과 귀를 어지럽게 하겠지만 우리사회의 이성과 민주화의 정도는 20세기도 채 소화하고 있지 못하다는 괴리감이 혼란스러운 연말이다.

Here is the PAGODA!!

지구촌을 우리의 활동무대로!
세계를 우리의 인재로!

이 지구의 끝 남극점과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에 우리 태국기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올려 놓았던 파고다의 'CAN DO' 정신은 귀하를 반드시 외국어 정상에 올려 놓을 것입니다.

이미,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과 손잡고 27년 동안 우리나라와 외국어 교육의 외길만을 걸어온 저희 PAGODA는 가장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국인을 위해 고안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교육합니다.



AN OUTLINE OF ENGLISH SYNTAX
柳 津 教授 著
(구문도해)

英語構文論

TOEFL·VOCABULARY & TOEIC 이 책들을 보기 전에 SYNTAX 제5형식 도해부터 연구하라는 권위있는 지도교수들의 공인된 추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초 영어구문론 W10,000

TOEFL·VOCABULARY & TOEIC 이 책들을 보기 전에 SYNTAX 제5형식 도해부터 연구하라는 권위있는 지도교수들의 공인된 추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초 영어구문론 W10,000

TOEFL·VOCABULARY & TOEIC 이 책들을 보기 전에 SYNTAX 제5형식 도해부터 연구하라는 권위있는 지도교수들의 공인된 추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초 영어구문론 W10,000

그 유명한 "광화문 영어학교" LTRC

영어를 왜 LTRC에서 배워야하는가? 여기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최고의 영어회화 프로그램
- 25년 동안의 영어교육 경험
- 시청과 광화문에서 3분 이내
- 읽기, 쓰기, 발음, 문법 등의 무료 특별 프로그램

LTRC is your key to learning English

제 151기 수강생 모집

개강일: 1997년 1월 6일

반편성: Level Test에 따라 8~13명

으로 구성

수강시간: 1월 75분 주 5일 수업(8주)

강사진: Native Speaker 직강

등록: 12월 18일부터 선착순

접수전화: 737-4641

팩시밀리: 734-6036

재단법인 언어교육부설 언어교육학원

LTRC

코리아나호텔빌딩

공무원 자격시험에 관한 궁금증을 상담해 드립니다

사행법시험	공공	7.9급
행정고시	대학원	공무원
교사채용	중개사	변리사
물류관리사	세무사, 회계사	25년 전통의 전문강사진 직장
개강 1월3일	충실한내용 / 새로운체계 / 전국최다합격	행정考試學院
전철1호선 종각역 2번출구	TEL 734-8082, 9484	